

그린웨이 / 교육사업부 박유빈 간사

청소년들에 친환경적 습관 심어

그린웨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습관과 인성을 길러주며 언론캠페인을 통한 환경계몽운동을 펴기 위해 1994년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창립한 환경단체이다.

그린웨이는 5백30만명의 가족이 뿔뿔 뭉쳐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데 최근에는 '그린웨이와 함께 하는 섬마을 바다캠프'와 '한강도보순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인터뷰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 ■ 일시 : 10월 10일 오후 2시 ■ 장소 : 그린웨이 회의실

■ 안녕하세요. 저희 월간 「과학과 기술」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웨이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인지요.

그린웨이·녹색소년단(이하 그린웨이)은 청소년 환경교육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1994년 10월 12일 창립하였습니다. 그린웨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습관과 인성을 길러주며, 언론캠페인을 통한 환경계몽운동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중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조직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창립 목적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친환경적인 습관과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활동의 주된 목표라면 성인이 활동의 중심인 다른 환경단체와는 차별된 활동이나 조직적 특성이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전국서 5백30만 가족이 활동중

그린웨이 운동의 핵심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환경보전 운동에 나설 이 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는 학교별로 녹색소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지역단위로 묶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환경을 보전하려는 실질적인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효과적인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색소년단 활동이 성공

적으로 뿌리내리면 그린웨이는 세계 조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녹색소년단 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어른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이들을 보살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그린웨이가 추구하는 환경운동의 방향입니다. 그린소사이터, 이것이 그린웨이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린웨이는 가족 단위 뿐 아니라 녹색소년단 전 단원이 하나의 녹색가족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린웨이가 지구환경을 다시 푸르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사회를 그린소사이터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린웨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린웨이 가족 5백30만명이 열심히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린웨이 현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섬마을 바다캠프

그 현장의 내용은.

· 숲이 푸르고 새가 노래하고 물고기가 뛰노는 지구별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행복하게 여긴다.

· 이 행복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의 것이기도 하기에 권리이자 의무인 것을 고백한다.

· 새에겐 깨끗한 하늘을, 물고기엔 맑은 물을, 산에는 푸른 숲을 되돌려주고 우리는 공동체의 사랑을 배운다.

· 새, 물고기, 나무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공동체 윤리를 실천한다.

· 말보다, 실천하는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녹색소년단을 통해 우리는 일깨운다.

· 지구별의 푸르름은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며 상징이며 또한 기쁨 그 자체이다.'입니다.

■ **그린웨일리의 주요 활동분야는.**

우선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환경을 목적교육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인 녹색소년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교사, 학부모에게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조사연구 활동, 환경 캠페인, 환경 감시활동, 국제청소년 환경연대 활동, 인터넷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섬마을캠프·한강도보순례 등 실시

최근에는 '그린웨일리와 함께 하는 섬마을 바다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01년 그린웨일리와 함께 하는 섬마을 바다캠프'라는 주제였는데요, 경제적, 지역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체험할 수 없는 지역, 특히 서해안의 도서지역(교동도, 덕적도, 자월도 등)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캠프였습니다. 캠프의 목적은 평소에 접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도서지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속에서 협동심과 봉사심 그리고 협력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특히 '2001 그린웨일리와 함께 하는 섬마을



한강도보순례

바다캠프'는 질 높은 교육여건과 새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기존의 교육시설을 통하여 수용되어질 수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들에 대하여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다양한 교육의 참여 기회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발달의 중심지였고,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며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태적인 중요성은 더욱 더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 한강을 걸어서 순례하는 '한강도보순례'도 실시했습니다. 이 '한강도보순례'는 생태마임, 지류하천 생태조사, 별자리 관찰, 유기농 체험, 곤충 탐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와 가정과 도심이라는 틀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강의 물줄기를 따라 걸으며 그 일부가 되어 생활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이타심과 협동심을 배우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그간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이나 국민의 인식 등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에 정부의 방침이 감히 발맞추지 못하는 듯 합니다. 특히 지금 우유갑을 펴서 깨끗이 씻어 가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주는 좋지 않은 질의 두루말이 화장지 한두개, 알뜰살뜰 주부들과 아이들의 고생과 관심에 비하면 이 얼마나 성의 없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①7